

6·25 참전영웅 70여년 만의 '귀향'

고 강윤식 일등중사
어제 제주호국원 안장
아들 둘 남겨두고 입대
1951년 인제전투서 전사
유족들 "고향 제주에
모실 수 있게 돼 다행"



6·25가 발발하자 자진입대후 1951년 인제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강윤식 일등중사의 안장식이 4일 제주호국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해 고귀한 삶을 바친 호국영웅 고(故) 강윤식 일등중사가 74년 만에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 안에서 영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6·25전쟁 전사자인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발골 유해 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날 안장식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전사자의 고향인 제주에서 최고의 예를 갖춰 거행됐으며 국가·고인에 대한 경례, 경과보고, 추모사, 종교의식, 헌화·분향, 영현 봉송, 하관 및 허토, 조총 및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고 강윤식 일등중사는 1922년 9월 서귀포의 한 소박한 농가에서 5

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고 구마와 보리를 가꾸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며 가세가 기울자 고인은 후대가 없는 친척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후 1942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지만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제주에 있던 육군 제5훈련소로 자진 입대했고 육군 5사단에 배치됐다. 고인은 1950년 10월 영남지구 공

비 토벌에 참전해 북한군을 소탕했다. 이후 횡성-포동리 전투와 태기산 전투를 거쳐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1951년 4월 27일 전사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4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제12보병사단 장병들은 강원도 인제군 박달고지 능선에서 고인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후 2021년 고인의 증손자 강성문씨가 군에 입대, 유해발굴 사업을 알게 돼 유가족이 DNA 시

료 채취에 동참했고 지난해 11월 신원을 확인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고인의 손자 강철진씨는 "아버지는 해군 부사관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셨고 평생을 할아버지의 유해를 기다리며 보내셨다. 비록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귀향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지만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아서 고향 제주에 명예롭게 모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준 국가와 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경찰청 협조 하에 장례차량 에스코트 지원,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집 정상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폐쇄보단 가해자 책임 묻고 운영진 교체해야" 사랑의집 장애인 부모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인권 침해 문제와 경영 악화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이용자 부모들이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는 사랑의집을 정상화시키기보다는 시설 폐쇄 후 강제 전원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면 공정하게 조사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법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운영진을 교체해 정상화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시설을 폐

쇄하고 강제 전원을 결정한 것은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부모회는 "장애인을 전원 조치하거나 강제 퇴소시키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명시한 중증장애인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거주 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수차례 발생하고 경영 악화를 겪는 사랑의집에 대해 지난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용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 3년간 폐쇄를 유예했다.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 소방공무원 포함하라"

제주소방노조 4일 기자회견

정부가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근속승진 기간 단축·규모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수혜 대상에 소방공무원이 배제되면서 소방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진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

표했다. 조성 방안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50%로 확대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난·안전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치에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배제됐다.

이에 노조는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은 재난·안전 분야가 아니라는 말인가. 소방공무원들은 우물을 넘어 조롱을 당한 기분"이라며 "우리는 단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처우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고사리 캐러 간 60대 실종

고사리를 캐러 나선 60대 남성이 나흘째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고사리를 채취 하겠다고 집을 나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배우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등을 이용해 A씨 차량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거센새미오름까지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차량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거센새미오름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조요청을 하고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노부모 상습 폭행한 패륜 아들 구속

제주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공무원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림읍 거주지에서 70대 모친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달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채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A씨를

찾으려) 자택에 찾아온 법원 관계자에게 모친이 본인의 위치를 알려줘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부모를 폭행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모친을 도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의해 주거지 퇴거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A씨는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엔 부친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모, 일반묘)
-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몬 / 미니향 / 탐맛1호 / 무봉
-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모, 일반묘)
-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 공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모, 화분묘, 일반묘)
- 하굴 / 팔삭 / 세미늘 / 금굴 / 당유자 / 머틀립오픈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 보조사업(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자정비와 지원사업 서류가능)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모, 화분묘 분양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향시판매 가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